



동남권 4개 철도 뚫렸다…비수도권 첫 광역전철

대구·영천·경주·울산·부산 연결

3년후 수도·강원권 2시간대 이동

독자 기술 준고속열차 KTX-이음 투입

부산~울산 광역전철 이용 30분대 이동

동남권 4개 철도 노선이 28일 정식 개통됐다.
대구와 경북 영천·경주, 울산, 부산을 잇는 연장 142.2km로 이번 개통 구간은 중앙선(서울 청량리~부산 부전)과 동해선(경릉~부전)의 종점부다.

계획대로 2024년까지 중앙선과 동해선이 모두 개통되면서 동남권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 태화강역에서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을 개최했다.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4개 철도사업은 동대구~영천, 영천~신경주, 울산~포항(신경주~포항·태화강~신경주), 부산~울산(부전~일광·일광~태화강) 등 경북·울산·부산을 잇는 228.7km의 단선 비전철을 208.4km의 복선 전철화하는 내용으로 2015년 4월 신경주~포항 구간이, 2016년 12월 부전~일광 구간이 먼저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약 18년 만에 모든 공사가 완료됐다.

이번 사업은 1974년 수도권 광역철도가 처음 개통된 이후 47년에 비수도권 지역에 첫 광역철성이 구축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부산~울산 65.7km 구간은 광역전철(전동차)과 일반열차가 함께 다닌다. 부산과 울산 두 광역도시를 고속카드를 찍고 전철을 타며 30분대에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노선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기술 자립에 성공한 준고속열차 KTX-이음이 투입된다. KTX-이음은 국내 최초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15%, 디젤기관차(열차)의 70% 수준이며 전력소비량은 기존 KTX 대비 79% 수준으로 전환경적이다.

이번 개통으로 동남권과 수도권 간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특히 태화강(울산), 영천(경북) 등 철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던 베후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화강에서 신경주역까지 거리면 기준에는 대중교통 편이 없어 자동차로 37분을 이동해야 했지만 직통열차를 이용하면 33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영천에서 동대구역까지는 단선 비전철 기준으로 34분이던 운행 시간이 복선 전철 개통에 따라 27분으로 줄여든다.

특히 중앙선 및 동해선과 연계돼 수도권 및 강원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중앙선은 도담~영천 구간 복선전철 사업을 마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 이를 출도 개통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을 시승했다. 연합뉴스 | 안정원기자

무리하고 2024년에, 동해선은 전철화 사업을 완료한 후 2023년에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이들 연계노선까지 모두 개통해 KTX-이음이 투입되면 부전~청량리 구간 운행 시간은 6

시간 31분(무궁화)에서 2시간 50분으로 무려 3시간 41분 단축된다. 부전~강릉 구간은 2시간 34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부산~양산~울산 구

간과 동남권 순환철도가 개통되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동해 축이 완성되면

남북철도뿐만 아니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민주횡단철도(TMR) 등 대륙철도의 출발점 및 종착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내년도 지방공무원 급여 1.4% 오른다

내년도 지방공무원의 급여가 올해보다 1.4% 인상된다. 또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의 수당도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구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1.4% 인상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

또 재난비상기구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 근무의 경우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수당지급액을 월 평균액의 50%에서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로 인상된다.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들을 위

해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은 현재 1일에서

29일로, 체외수정의 경우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또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일과 관계

없이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준에는 출산예정일 41일 전부터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일산부 보호를 위한 '일산부 약간 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장된다.

전해질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의기자 seo@jeonmae.co.kr

서울시, 청파2구역·마장동 등
신속 민간재개발 후보지 발표
창신·송인 등 4곳 포함 21곳 선정
사업순행시 2만5천여호 주택 공급

서울 용산구 청파2구역·성동구 마장동 등 21곳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마포구 광역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알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I-2구역 등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종로구 청진동 23·승인동 56 알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번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지원했으며, 이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첨한 59곳을 대상으로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자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전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에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5년 이상이 걸린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며 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 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전대로 진행된다면 서울 지역에 약 2만5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시는 자자체 등과 함께 이상 가래 읍지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민심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비밀번호 설정 완료
건강관리의 시작
**건강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연
문의 : 032-890-8700

인사이드

내년에도 '대구행복페이' 1조원 발행

▶2

송도에 국내 빅3 바이오 기업 모인다

▶8

'삼바' 송도 주차빌딩 공사에 주민 불만

▶13



어르신의 둘째 마음을 챙기는 디자인한
AI 케어로봇

한국에서는 공간을 소독하고 방역하는 안전 지킴이
AI 방역로봇

힘 든 일도
귀찮은 일도
모두 편한 일로

KT의 AI 로봇이 일하겠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어르신 댁, 공공기관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찾아가
고객의 손발이 되는 로봇이니까
모두의 일상을 편하게하고 여유롭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DIGICO KT



李 “동일노동 동일대가·비정규직 보수 개선”…정세균도 등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일을 해도 고용인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수록 보수가 적은 흐름한 사회”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사업에서도 최소한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주자 지금하고,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해야 한다”며 “언제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실질적으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가 “복지사를 일화용으로 내보는 현실에 마음이 답답하다”고 당혹스러워하면서 “나는 정규직이 되어야겠다. 정규직이 아니면 이상방(이번 생은 망했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불안정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해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이라며 “공공영역에서 단기계약, 비정규 일자리에 추가 보상

을 실시해 불만이 없게, 굳이 정규직이 아니어도 살 수 있겠다는 정도로 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조금이 아니고 활성, 확실히 더 낮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낮은 처우를 청탁하는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토로에도 “동일노동에 동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보수체계의 단일화 기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왜 복지혜택을 받으려 하느냐는 희한한 생각들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에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인 복지지출을 장기적으로 20%까지 올리자는 복지계의 요구에 공감을 표시했다.

고용안정 보장된 경우보다 비정규직 보수 높아야 정상” “복지인식 저열…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전근대적”

丁, 후원회장 말아…“드림팀 구성 호남 진통증 치료 길질 기대”

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는 예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일부 낙후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상향평준화를 하자니 예산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티는 것 아닌가”고 했다.

이어 “뿌리는 결국 정부의 태도에 있다. 복지 는 불쌍한 사람을 돋는 것 아니면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직업이리가보다는 선생이라는 생각이 정부 당국자와 국민의 생각 속에 깔려 있다”며 “복지는 의무이자 권리이고 종사자는 당당한 하나님의 직업이라고 보는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일찌 전진하고 치열을 수 있는데 놓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경우의 가족관계를 ‘정상가족’이라고 하는데, 미혼모의 경우는 비정상이나”며 “사회적 오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전통가족’이라고 표현하자. 다른 형태의 가족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명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민주당 선대위 권혁기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 실천연대 간담회-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세균 후원회장과 함께 부정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모금과 운영으로 이번 대선을 클린 선거로 치른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정 후원회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깨끗한 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며 “정 후원회장의 선대위 동침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완성되었다는 상징”이

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비전위) 공동위원회로 등판한데 이어, 정 전 총리까지 후원회장으로 나서며 진정한 ‘원팀’ 퍼즐이 완성된 모양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각각 전남, 전북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호남을 비롯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

지역 결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후원회장과 선대위 상임고문직을 겸하게 된다.

이 후보가 며칠 전 정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정 전 총리가 흔쾌히 수락했다고 부탁했고, 정 전 총리가 흔쾌히 수락했다고 부탁했다. 권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문체부,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 구상 전남도 2014억 반영…‘관광수도전남’ 시동

10개년간 6858억 투입 권역별 핵심브랜드 구축·연계사업 집중 발굴
‘한국형 월니스 관광’·‘남도 문화 예술지대 구축’ 남서·남중권 반영

전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계획에 관광개발 사업비 2014억원이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은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전국 5개 시·도를 3개 권역으로 한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10개년간 약 6858억원을 들어 권역별 핵심브랜드 구축과 연계협력사업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3개 광역관광권 중 전남·경남이 포함된 남중권은 ‘한국형 월니스 관광 메카 구축’을 목표로 1933억원을 들어 ▲해양·섬·보유한 치유·체류콘텐츠를 특화한 월니스 관광거점 육성 ▲섬진강권 힐링 여행 브랜드화 및 체류관광 기반 확대 ▲소소관광지 발굴·육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남·광주가 포함된 남서권은 ‘남도 문화 예술지대 구축’을 목표로 1883억원을 들어 ▲디도해 함께 섬 프로젝트(섬 관광 활성화) ▲남도달빛 예술여행지 육성 ▲대한민국 대표 순례 관광 및 디도해의 경관 명소 발굴·조성 등에 나선다.

이 사업을 통해 해안과 내륙, 섬 등 전남의 수려한 자원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거듭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서 지속 가능한 관광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0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767억원, 일자리 창출 5521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남부권 관광개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자체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영·호남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을 부

각해 부처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이번 기본구상에 남서권, 남중권 발굴사업이 반영되고 사업비도 증액됐다.

특히 올해 기본구상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선제적으로 긴의해 정부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원을 반영토록 했다.

도는 내년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기본계획에 도 사업이 반영되고 규모도 확대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영신 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남해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국토발전축의 중심지인 만큼 도가 남부권 관광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라며 “국가계획 반영으로 관광 자원 활용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한태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올해 집값 상승률 IMF 직후 부동산 폭등기 아래 최고치

올해 부동산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인 1998년 이후 폭등했던 시기 아래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작년 말 대비 14.97% 오르면서 2002년(16.43%)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국 집값은 2001년 9.87% 오른 데 이어 이듬해인 2002년에는 상승폭(16.43%)이 더욱 확대됐다.

2002년 당시에는 임초에 집값이 월 2%대의 급등세를 보였다면 올해는 집값이 5월(0.96%)과 12월(0.50%)을 제외하고 거의 매달 1%대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아파트의 매매가는 올해 전국적으로 20.18% 올라 지난해 상승률(9.65%)의 2.1배에 달했다. 빌라(다세대·연립) 가격 상승률은 올해 6.99%를 기록해 이 역시 작년 상승률(6.47%)을 웃돌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폭발적인 유동성이 나타났다. 서울(12.50%)과 경기(22.49%)는 2006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23.75%)은 관련 통계가 접계되면서 1986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은 관교, 위례 등 2기 신도시 개발 호재 등으로 이른바 ‘밸브세븐’(강남권 3구·목동·분당·평촌·용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

던 시기다.

특히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25.42% 올라 2006년 상승률(24.61%)을 뛰어넘었다.

작년(12.51%)과 비교하면 두 배 넘는 상승률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경기·인천에 집중됐다. 경기 오산(49.30%)과 시흥(43.11%)은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40%대에 달했다. 동두천(39.25%), 인성(38.52%), 의왕(37.43%), 행정(36.61%), 의정부(36.48%), 인안(34.00%), 군포(33.91%), 수원(33.01%), 인천(32.83%), 고양(32.19%), 화성(31.78%), 남양주(31.70%)는 30%대 상승률을 보였다.

박 전문위원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교통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과 비교적 집값이 저렴하다는 인식에 따른 풍설효과로 인해 올해 수도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며 “집값 급등세가 지난해면서 불안을 느낀 2000 세대들이 자주把握 기록도 있는 실정에서 ‘탈서울 내 집 마련’ 행렬에 동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함께 달려온 60년 함께 열어갈 100년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겠습니다

NH 농협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로 놀랍게

도시와 농촌을 위해
유통을 새롭게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바르게



함께하는 100년 농협



경북 경주시가 천년고도 이미지에 걸맞는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건축 문화 조성과 퀘직한 도시환경, 시민 주거복지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경주 황남동 한옥촌 항공사진. <경주시 제공>

“천년고도 위상 걸맞는 건축 문화 조성”

경북 경주시가 천년고도의 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아름다운 건축 문화 조성과 역사문화도시로써 도시 미관 개선, 그리고 시민들의 퀘직한 주거 공간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형적인 도시의 멋을 더욱 살리고 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의 면면을 살펴본다.

● 전통 한옥 간접 지원 관광 인프라 구축

시는 경주의 옛스런 멋을 더욱 살리기 위해 전통한옥 건축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시는 올해 최근 2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얻은 전통 한옥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23개 건축물에 총 8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한옥 건축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공공건축 디자인 품격 제고

시는 지난 2019년에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총괄건축가는 건축·도시 공간 디자인 정책 마련과 주요 건축사업 총괄·조정 등 역할로 수준 높은 도시공간 조성을 기여한다.

1대 총괄건축가로 이대준 한동대 교수가 2년간 역임했고 지난 6월 현택수 경인대 명예교수가 제2대 총괄건축가로 위촉됐다.

● 지역 어르신들 주거복지 실현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인감을 고령자 주택(사업비 172억원, 108가구)이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에

선정됐고 지난해에 활성동 고령자 주택(사업비 198억원, 137가구), 올해 내남면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

내남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남면 이조리 일원에 사업비 223억원이 투입돼 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4년까지 주택단지와 함께 연면적 15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도 조성돼 입주자와 인근 거주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현곡면 소재 부도 임대주택 매입, 임차인 보호

지난 2019년 부도가 발생한 현곡면 금정로일아파트에 거주증인 임차인 72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요청해 지난 8월 경주시·국토교통부·LH 간 매입 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현재 매입 지정·고시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나가 주택을 매입하고 시가 수리비 등을 지원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퀘직한 주거 환경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사업’은 준공 후

전통한옥 건축 지원·장려 예산 8억 투입

총괄건축가 운영 도시공간 품격 향상 기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3년 연속 선정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비용 지원

10년이 지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안전과 퀘직한 주거환경 조성,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수비용의 70% 이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기로등 보수, CCTV 설치, 상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방수공사, 외벽도색 등이다.

지난해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3곳 공동주택에서 올해는 15억원을 투입해 32곳 공동주택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 취약계층 생활 환경 개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퀘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며 시 예산 5000만원을 긴급 편성하고 방수와 도배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퀘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주거복지 실현으로 시민들이 퀘직한 주거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3층 이상의 피난의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숙자시설·어린이집 등)과 다중이용업소(1000㎡ 이하의 고시원·목욕장·신후조리원 등)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기연성 외장재로 지어진 건물로 최대 2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스프링클러·피난계단·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작업이 실시된다.

시는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생활 환경 개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퀘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며 시 예산 5000만원을 긴급 편성하고 방수와 도배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퀘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주거복지 실현으로 시민들이 퀘직한 주거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 이석이기자 lee-seok2@jeonmae.co.kr

경주 뉴스 브리핑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성과 보고회

초유은행 운영·한우 유전자원 관리 등 성과

경북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축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농업자체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유공 공무원 시상, 경주 한우회우 신규 HACCP 인증증명서 수여(13곳 농장), 사료성분 분석실 개판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초유은행 운영·한우 유전자원 관리,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지원, 친환경·안전축산물 생산농가 검사지원, 화재 걱정없는 어린 가축 보온등 개발 등 통해 동안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이율리 농촌진흥청 국비 2억원 확보로 사료성분 분석실을 신설해 내년초 사료분석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분석실은 축산농가가 생산한 자체 배합사료를 대상으로 조단백질·조지방·조섬유·조회분·수분·곰팡이·독소 등 성분 분석을 지원하게 된다.

주낙영 시장은 “사료성분 분석실 신설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이기자 lee-seok2@jeonmae.co.kr

화랑중·황성초 방문 백신 접종

겨울방학 전 백신접종 완료 당부

경북 경주시는 이동·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전날 화랑중학교를 방문해 학생 등 7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보건소에서 의료진 3명과 구급차 1명, 행정인력 2명 등 6명이 학교를 방문해 접종 전 철저한 예진을 실시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관찰하는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를 백신 접종사고에 대비해 접종과정을 세심히 행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2일 황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16명에게 접종을 실시하기도 했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와 청소년의 접종감염사례가 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겨울방학 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이기자 lee-seok2@jeonmae.co.kr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방역패스·방역수칙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입장 시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 예외자: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기

- 음식을 섭취 시 예외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사전예약제 운영하기(권고)



**더 안전한
나은 일상**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가능합니다

① 공통 주의사항 |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린이공원 2개소 새단장

경기 안양시가 어린이공원 2개소의 정비 공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귀인동 끔미을어린이공원과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이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별 조정교부금 13억 5000만 원을 활용, 지난 9월 착공한지 약 4개월 만에 절벽을 마쳤다.

450㎡면적의 끔미을어린이공원에는 별집 모양의 조형물이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그네, 물 놀이체험시설, 모래놀이기구 등이 등장했으며 4002㎡규모로 관악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의 별별놀이장을 고려해 유아와 아동 전용 놀이 공간을 분리하고 모험심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시설들을 새로 설치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내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경기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어가 집중투자 계획발표에 따라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2년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회·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며 시 자체사업인 '출신축하금'과는 별도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출생 순위, 디비아 등에 상관없이 국민행복기록 이용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파주/ 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대한민국 좋은정책대회사 '최우수상'

충남 장진시가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CN이 주최한 대한민국 좋은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는 '시민이 이끄는 어려운현혹별사' 정책이 그 진리를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전국 102개 기초지자체에 288건의 정책 사례를 선보여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지난달 김종창 시장이 직접 발표평화 후 최종 20건이 수상한 것에서 더욱 의미가 남달랐다.

시는 민간 산부인력발전소 재생에너지 밭터단지로의 전환, 에너지전환을 위한 조례·위원회·기금·중간지원 조직 등의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2021년 충남도 그린홈 유통 아파트' 선정

충남 보령시는 도가 주관하는 '2021년 충남도 그린홈 유통 아파트'에 동대류면이나 4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해 그린홈 유통 아파트로 도내 시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중 주민 스스로 자치 관리를 통해 친환경적인 주거문화를 조성한 분양 부문 2개 단지, 임대 부문 1개 단지 등 총 3개 단지를 선정했다.

동대류면이나 4단지 아파트는 시의 추천을 받아 지난 8월 공모 신청 후 9월 충남도 평가단의 심사 및 현지실사에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시설유지관리, 주민 자율활동 및 주민회원행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임대 부문 1등으로 최종 선정됐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강원도, 올해 투자유치 '역대 최대'

18개 기업서 3조5750억

고용창출도 6081명 성과

기업하기 좋은 기반 마련

강원도는 올 해 코로나19 등 악조건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올해 투자유치는 18개 기업, 3조 5750억 원, 6081명의 고용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대비 투자규모 4배 이상, 예산의 16배 이상의 성과다. 특히 올해 성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기업의 투자 감소 및 내수 침체 등 다

양한 악재 속에서 거둔 결실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도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 전략적 투자유치로 투자환경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이전 수요 및 투자방향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전략 업종 선정, 운·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4차 산업 연계 협단 제조분야 및 고용유망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중점 유치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요 성과로는 주식회사 에스에스포터스와 주식회사 세서블레저는 오는 2028

년까지 인제군 남면 정자리 일원 부지 432만 1558㎡(약 131만 평)에 650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속 백사점(호텔, 스파, 콘도)체육시설(골프, 스키), 상가시설 등 사회생활 종합 휴양리조트 조성을 통해 생산유발 1조 4000억 원, 고용유발 6800명, 사업장 내 6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내년에도 양질의 기업유치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단 제조 및 고용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기업유치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유치 홍보채널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강원랜드희망재단의 폐광지역 작은식당 웅월 프로젝트 '정·태·영·삼 맛끼다!' 20호점 '김가치돌'이 28일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강원랜드희망재단 제공>

강원랜드 폐광지역 작은식당 20호점 재개장

삼척시 도계읍 '김가치돌' 운영

강원랜드희망재단(이하 재단)의 폐광지역 작은식당 응원 프로젝트 '정·태·영·삼 맛끼다!' 20호점 '김가치돌'이 28일 강원 삼척시 도계읍에서 차돌박이 전문점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맛끼다 20호점으로 선정된 '김가치돌'은 기존 염소전골, 염소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과 경쟁력이 없는 메뉴로 매출 부진을 겪어 시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재단은 접수 김진래씨(44)와의 면담과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대중적인 선

호도가 높은 차돌박이, 대파삼겹살, 소갈비살을 주메뉴로 구성했으며 접수 김씨는 약 2개월 간 강원랜드 조리팀 직원으로부터 위생교육과 개선 메뉴 조리법을 전수받아 재개장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강원랜드 사내벤처 우드리즈와 협업을 통해 식당 내·외부를 리모델링하고 청결한 위생을 위해 주방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정선군, 지역개발사업 본격 추진

아리랑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총 4개 사업 승인 150억원 지원

강원 정선군이 아리랑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군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최종 승인돼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은 군이 아리랑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사업(기정 아리랑 교) 등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을 발굴해 국비지원을 통해 각종 대형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인된 이번 사업은 모두 4개 사업으로써 아리랑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사업 102억 원, 군도 7호선 접속도로 개설사업 24억 원, 군도 3호선 정비사업 24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군은 또 민자 등 1400억 원이 투자되는 신동 목재밸리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성장촉진지역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밸런스를 지원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 등의 상황을 평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 시·군을 지정하고 있으며 군은 지난 2019년 신규로 평선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무릉별유천지 1단계 사업 준공' 1위 차지

동해시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발표

강원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1단계 사업 준공'이 올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지역 이슈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시를 기장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한 결과 '무릉별유천지 1단계 사업 준공'이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동해시 내 10대 뉴스는 관내 주요 사건·뉴스 종·언론 보도 실적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2위는 '도깨비골 스키아밸리&해양 전망대 개장', 3위는 '평상오로院院长 조제 재해복구공사 완료' 각각 선정됐으며 이어 '무릉계곡 베틀비위 산성 길&무타산 힙곡 마천루 전면 개방', '동해레이 1년 누적 밸런스 243억 원 돌파', '김주해변 입구 영동선 보도육 고개통', '동해 별누리 천문대 개방', '목호관역, 구도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호지구 비단가 해방마을 준공', '무릉별 호암소길 개방'이 올해의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시의 올해 10대 뉴스는 시가 그동안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새로운 관광지 개발 사업이 주로 선정됐다.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군포시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전국 최우수 정책

대한민국 좋은정책대회사 선정

경기 군포시의 '민관협력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이 전국 최우수 좋은 정책사례로 선정됐다.

시의 기후환경분야 모범사례인 '민관협력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은 복합화물터미널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쿨&클리로드, 스마트그린 방음터널, 재탄소 체험 플라질 등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소음, 미세먼지, 열섬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사업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새로운 경제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60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한편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평가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을 잇따라 입성했다.

군포/ 이제훈기자 goodnews@jeonmae.co.kr

횡성군, 16개 공모사업 선정…총 272억6천만원 확보

핵심사업 추진 동력 확보

강원도 횡성군이 올해 16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각종 주요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군이 신청한 공모사업은 20개 사업으로 그중 16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림 녹지과의 '횡성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횡성 선도신림경영단지 조성사업'과 건설과의 '국도42호선 우천 쇠목문화 복합센터 사업', 교육복지과의 '2022년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등이 있으며 국도비 195억3000만 원을 포함해 총 272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히 주민 요구도가 높은 네랄란드 테마

미을 조성과 연계된 '우천 쇠목문화 복합센터 조성사업'과 횡성문화복합단지 내에 조성되는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횡성루지 체험장과 연계한 '횡성루지힐센터 조성' 등의 공모 선정으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김석동 미래전략과장은 "조례 시행 이후 사업 부서의 공모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응모가 가능해졌다"며 "올해 미선정 된 사업들도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음을 기록한 것이다"고 밝혔다.

횡성/ 인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정원아, 오늘도 부탁해!

정원이를 만나면 하루가 맛있어지니까

오늘을 더 맛있게
청정원



무료 모바일게임으로 유료 게임장 운영…“게임산업법 위반”



화제의 판결

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기계로 옮겨 이용료를 받는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한다면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며 대법원의 판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하고 28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등급 범죄로 처벌받은 전례 있고 같은 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단속과 함께 게임물을 징수하는 행위에 저항하면서 게임장을 열고 게임기 숟가락을 오히려 늘린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게임장에서는 1만원을 투입한 뒤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원이 예상 수령금으로 환수되는 게임장이 수령금으로 환수되는 게임장이 되기는 했다.

연합뉴스/정성조기자

지만 이런 정치가 게임을 내용 자체를 변경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무죄라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게임 산업법과 시행규칙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 통념상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은 시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 한다”며 “이런 과정체계 변경은 등급 분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봄을 한다”고 판시 했다.

또 “유료 아케이드 게임을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게임산업법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급 분류로 부여되는 예상 수령금의 대상으로 변경되더라도 수령 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봄을 한다”며 “이는 게임산업법이 수령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도로점용·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등 불만 고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삼성바이오로직 스가 대형 주차빌딩 건립 공사를 하면서 과도한 도로 점용과 불법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건설 현장 앞 4차로 도로는 큰코드트 디설을 위하여 텁크카와 레미콘, 자작자 등이 3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머지 1개 차로에도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운 채 정차하면서 운전자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해당 구간을 지나갔다. 당시 인근 도로 한복판에는 공사장 작업자들이 불법 주차한 차량이 깊게 들어

서 있었다. 일부 차들은 인도 위까지 진입했고,

길가에는 다페풍초와 종이컵 등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심지어 한국주택공사에서 최근 전력구 매설을 위해 주차빌딩 공사장 주변 도로에서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어난 더러운 홍수를 빚었다. 주민 이모씨(62·송도동)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해서 주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민 협경 장터가 사라진다”고 지적 했다.

연수구 송도관리관에게는 “28일 현장을 찾아 해상 공사장 일대 불법 사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도조치하고 있다”며 “곧 시공사 관계자를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삼성바이오로직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시공사는 현재 시炸사현에 대해 조치 내용을 번역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속초시, 제설작업 박차 도심구간 도로 속속 정상화

김원 속초시가 늦장 제설작업으로 칭화대 청원과 SNS 상에 비난의 글이 쇄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본지 12월 28일자 13면 보도) 7번 국도와 시내 도로 등 주요 도심 구간에 대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째 시청 전 광무관, 산불관사터, 산불전화대, 102경악대원, 군장병과 시울방재단 등 민·관·군 합동으로 연일 3000여명과 제설장비 212여대를 투입해 폭설로 눈이 쌓인 시가지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서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청 공무원들은 25일부터 주민이 이면도로 및 주택 밀집지역 도로 등 제설취약구간 제설작업 실시하고 여기에는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한 상

작업 유도에도 투입돼 시민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기 위해 일정하고 있다.

속초시자치율봉제자리에서는 20여명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해 25일부터 인력과 자재·복유한 It 트럭에 산발을 붙여 맙아내기식과 3명이 탑승해 암회길을 수작업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시민봉제자리 구성된 지원봉사 800여명도 빠른 제설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 관계자는 “30일에는 7번 국도 등 도심 구간을 비롯한 주요 도로는 대부분 제설이 완료될 예상이다”며 “화물차와 시내버스는 미끄러져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각 시민들이 신속하게 겨울철 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속초/윤택호기자 youth@jeonmae.co.kr

제주 산간 들개 2천여마리 서식…‘최상위 포식자’ 군림

가축·야생동물 피해·사람 위협
“유해야생동물 지정 검토해야”

제주 중·소간 들개에 최대 2000마리 넘는 들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8일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중·소간 지역 야생동물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1626~2188마리의 들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산림지역 초기화 접한 해발 300~600

CJ대한통운 노조 무기한 파업

전국 배송대란 가능성은 적어

노조 “전체 물량 20% 이상 차질”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가 택배비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사전 방지대책으로 유기견이 들개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유기·유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와 유기·유실 등을 일정 확장화, 중성화 수술 확대 등을 제언했다. 또 법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주취재본부/양동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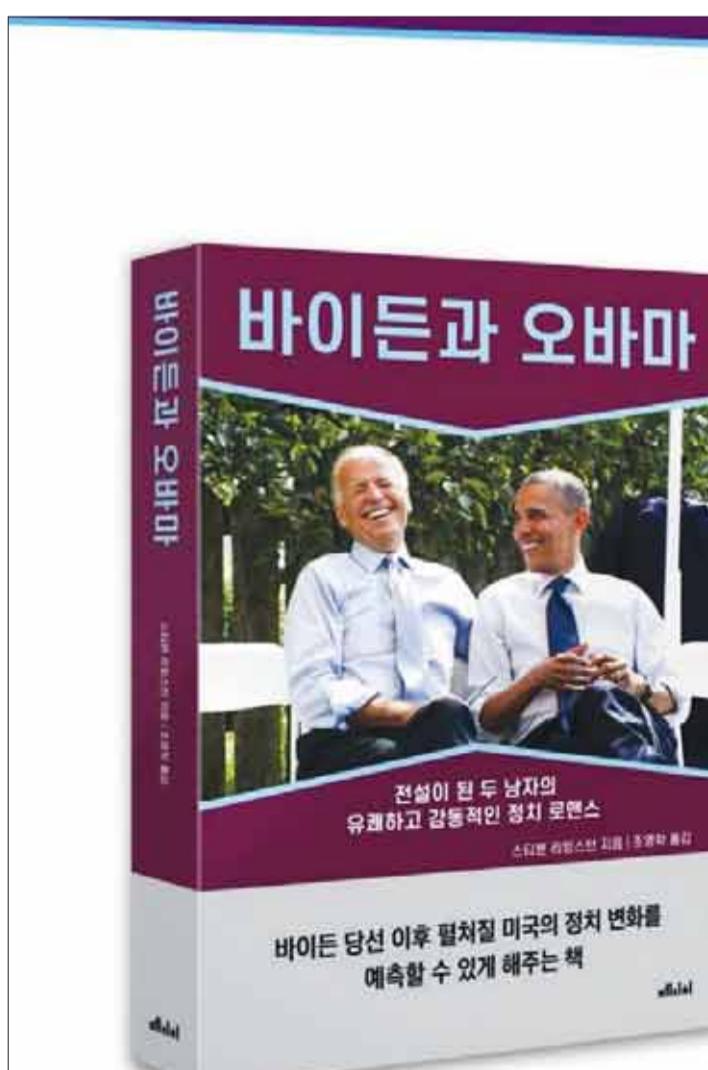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은 2500명 정도로 이 중 전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5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 전쟁의권 없는 조합원과 파업을 지원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것으로 파업에 간접 참여한다.

진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취급하는) 전체 물량 중 10% 이상이 접수·처리되지 않는 물건이 될 것 같고彤경 택배 소비에 있어 높은 불편성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전체 물량 중 20% 이상이 이번 파업으로 정상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상에서는 전쟁의권 있는 노조원이 전체 CJ대한통운 배송 기사 중 85% 수

준인 민족 전국적인 ‘배송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이미 택배노조 총파업을 겪으면서 대비가 된 터라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산과 경기 성남, 경남 청원 등 노조 기입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업이 정기화될 경우 연말연시 택배 수고를 맞아 다른 지역에도 연세적으로 과업 영향이 커질 수 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요청에 따라 송장 출력을 제한하거나 1000여명 정도인 직고용 택배기사 파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eew@jeonmae.co.kr



2020년 미 대선의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인가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조 바이든의 극적인 인생과 정치 역정

뛰어난 정치적 파트너십으로 미국을 훌륭히 이끌어간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그들이 함께한 8년은 미국 정계의 전설이다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다.

조 바이든이 출사표를 던진
2020 미 대선의 향방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최상의 소개서”

—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한미동맹의 미래를 두고 말이 많은 요즘
한국 독자에게 시의적절한 책이다.”

— 최상훈(<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

<댈러스 모닝뉴스> 선정
2019 베스트북 <워싱턴 포스트> 선정
2019년 주목할 만한 논픽션

교보문고에서
“바이든과 오바마”를
검색하세요.



사건·사고

전처 남친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30대 체포

이훈한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처 C씨의 집을 찾았으나 B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혐의를 뒤집어썼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과정에서 전처인 C씨도 경상을 입었지”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송파구 21층 건물 지하 주차장서 불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21층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28일 낮 12시 54분께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건물 입주자 등 100여명이 대피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를 발생한 이 건물 지하 주차장의 1~4층은 기계식 주차장이어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는 승용차에서 화재가 시작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박철복기자 parkch@jeonmae.co.kr

0산 산단 부근 빙판길 2차 사고…3명 숨져

충남 아산시 산단지 주변 빙판길 도로에서 발생한 2차 충돌사고로 1차 사고를 수습했던 퇴근길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1차 사고 차량 외국인 운전자와 1차 사고를 수습하던 다른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28일 충남 이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7분께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 교차로 부근 2차선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다.

사고 후 뒤따라온 쏘렌토 차량 탑승자 4명이 다같이 내려서 2차선 위에서 있는 화물차로 다가가 운전석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화물차를 그대로 덮쳤다. 이 충격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를 수습하던 쏘렌토 탑승자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쏘렌토 탑승자 4명과 화물차 운전자 등 5명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로, 일을 마치고 속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화물차 운전자는 필리핀 국적, 쏘렌토 탑승자는 러시아 국적 2명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적이 각각 1명이다. 화물차 운전자와 쏘렌토 탑승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아산/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영부인의 자격(2) - 女史의 귀환

강상현의 하제별곡



문화비평가·우리글진총원 고문

영부인이란 말의 과도한 '꼴'을 (겸손하게)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들린다. 이렇게 막과 글에 아두우면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 주목받는 인물의 별언은 이웃과 후세들에게 치적 교과서처럼 (옳은 말로) 여겨지기 쉽다. 늘 조심하자. 女史는 고대 중국 여성예술의 이름이었다. 비빈(妃嬪) 궁녀 등 많은 여인들의 미모와 몸 상태 등을 체크하는 일의 성격이 워낙 사람을 순서를 정하는 일을 했다. 엄청난 권력이었다. 주(周)나라 기록이 재민 역할의 역사는 길기도 하구나.

이 관직은 중국 왕조시대가 끝나면서 사라졌다. 청나라 말기 이후에 창녀(娼女) 즉 갈보나 포주(抱主)의 별명으로 그 이름이 쏙였다. 우리 역사 앤드류 군 때 차후사(察后使)처럼, 일의 성격이 워낙 비슷해서였겠다. 왜(倭 일본)의 역사에서도 이런 역할이 있었나보다. 명치 유신(明治維新)으로 일본이 사양물을 받아들일 때 '보통여자'와 비교되는 안데리 또는 상류층 여자의 뜻 영어 블루스토킹(bluestocking)의 반역으로, 잉글리시를 '영어' (English)로 반역하는 차림법, '女史'를 선택했다. 역사용어를 재활용한 것이다.

새 문명의 용어에 그들은 신문 언론 기자 과학 철학 지향(止境) 따위의 새 이름을 붙였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현자로 된 개념(概念語)에는 이런 용어가 많다. 이 명칭은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상륙한다. 일본에서 기운여성의 성씨 뒤에 붙이는 존칭이 있다. 일본에서 기운여성의 성씨 뒤에 붙이는 존칭이 유형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미지로 쓰이게 됐다.

몰랐을 때 그럴싸한 이름이지만 그 속 양면 담황스럽다. 자칫하면 '영부인' 대대로 '여사'가 등판할 수도 있겠다.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하는 가정에서의 얘기다. 활동하기도 '아내 역할만 하겠다'고 공언(公言)한 김건희 씨의 태이름이 영부인 대신 여사(女史)가 되는 셈인가. 서운 여성운전의 대명사 '김 여사'처럼, 저 이름이 얼마나 많은 구설(口舌)과 화제에 오를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는 불보듯 확실하다는 뜻과 흡사한 말, 불과 30년 전의 이 유행 어도 여사처럼 언어의 역사성을 알려주는 본보기다.

역사는 무섭다. 뜻을 알고도 여사를 쓴다면, 정신줄이 훌들리거나 느슨한 사람들일 테다. 맙고 세상에 관한 고민과 공부를 권하는 깨님이다. 영부인(女夫人)이면 또 韓人文인들 어떤가? 역사는 뭐 다른가? 글쟁이들 할 것 없어 노는 밀장난 아니나? 가끔 이런 냄새가 리기는 얘기 듣는다. 그러나 맑고 글은 사물의 본질을 드러낸다. 나야가 문화(文化)처럼, 미래를 이끄는 동력이다. 뜻의 구분(區分)이 언어(학)의 핵심이다. 인문학은 언어로 한다. 언어는 문사철(文史哲) 순례길의 첫 계단이다.

해결책은 있다. 여사는 한자 女史의 역사로 바꾸면 좀 낫다. 훈(訓)과 음(音)이 '선비 사'인 히는 진지한 공부와 품격 갖춘 이를 가리키는 단어다. 새 말의 조합은 '여자 선비' 뜻이 된다. 이를 기자라면, 꼭 박사스페인 아니더라도, 명실상부한 걸맞은 자격을 유지(維持)해야 한다.

'꼭 영부인이라 해야 하나. 여사(女史)나 씨(氏)로 하면 되지' 운설험 후보의 발언, 이런 뜻이었다. 韶夫(人)이란 생뚱맞은 '영부인'(대통령부인)이 원래 맡 숨夫人(상대방 부인의 존칭) 뜻을 맹신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빌을 같아 헷갈릴까? 언론매체들이 이 글을 인용해 비른 뜻을 알리고는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생뚱 영부인여왕'이다. '여사나 씨' 발언도 비슷한 흐름이다.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 사진, 만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동빌딩)

전화 1588-5762 / 팩스 031-738-4380 / 홈페이지 제보 jeonmae.kr

외부 링크의 칭함, 기고, 독자투고는 본지의 면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고

고화순

대한민국전통식품명인
남양주시 하늘농가 대표

겨울에 제격인 시래기 이야기



유웠으며 어려운 성분들은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유방암, 결장암 등을 예상하는 효과를 보인다.

특히 시래기의 대표 성분인 식이섬유는 위와 장에 오랜 시간 먹물려 포만감을 주고 배변활동을 도와 체중관리 및 변비에 도움을 준다. 또 혈증 흙에스테롤 수치를 낮출뿐만 아니라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vier 대장 애용에도 효과가 있다. 혈분이 많아 비혈에 좋고,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해 끌고 강장에 도움을 준다. 시래기는 오래 끓어야 천연온 족감이 일품이다. 시래기에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더져 넣고 갖은 양념을 해 기름에 볶아 시래기나물로 요리한다. 특히 정월대.ua에는 겨울을 끌고 볶을 때 해 오곡밥과 떡나물을 해 먹었는데, 묵나물은 시래기가 꼭 들어갔다. 시래기 허물을 적당한 길이로 썰어서 원장을 걸려 끓고 쌀을 넣어 쑨 시래기죽을 만들어 임암이 없을 때 먹으면 좋겠다. 또 시래기에 쇠고기, 된장, 두부 등을 넣고 시래기끼기로도 요리한다. 시래기에 된장을 걸려 끓고 끓인 시래기죽도 있다. 쇠고기를 잘게 썰어 넣거나 조개를 넣고 끓이면 더 맛이 좋다.

김자탕에 끼지 않는 걸 끊어 함께 시래기를 허물고 넣어 먹는다. 이부에도 살기두와 섞어서 편 시래기떡, 풍년떡, 무와 함께 섞어 만든 시래기 지장미 등이 있다. 시래기는 된장과 잘 어울려 풍미와 구수한 맛을 내고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주면서 된장의 냄새를 배출을 도와 된다. 좋은 무청을 곁과 그늘에 사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비타민 손실이 적다.

무성귀가 겨울 친비름을 맞으며 완전히 말리자 시래기가 된다. 일교차가 커야 시래기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맛있어진다. 최소 3번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여 맛이 살아나고 한다.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고 해발 300500m 분지의 강원도 양구 편찰 시래기가 유명한 이유다. 양구 시래기는 소비가 많아서 잎과 줄기와가 좋고, 뿐리는 작은 시래기 생산 무기까지 재배하고 있다. 시래기는 채소를 먹기기 때문에 겨울철에 모자리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등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음식이다. 시래기의 원료인 무청은 무 뿌리보다 비단민 C, 식이섬유, 칼슘, 칼륨, 염산 탄광이 높으며 그에 따른 효능, 효험 또한 무 뿌리보다 월등하다. 시래기의 경우, 무청 100g 당 칼슘 함량이 무 뿌리보다 약 10배가량 많다. 잎을 약재하는 성분이 무 뿌리보다 무청에 많이 함

세상이야기

세조에 대한 또 다른 평가



성남미래정책포럼 이사장

치에는 으레 기상을 부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세조는 기상을 삶아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기생들은 하얗게 분장을 시켰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반면 정희왕후에게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밖에 나갈 때도 항상 대동해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금슬을 칭찬했다. 정희왕후 역시 매우 현명한 여인이었지요. 세조가 처가 쪽 사람을 등용할까 하면 인사의 공정함을 강조하면서 반대했고 정체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세조가 국정을 논할 때 "집사람이 이렇다는데... 같은 식으로 말하는 일이 삼십자 않게 등장하지요. 동시에 세조는 의리의 사나이였다. 세조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왕위에 오른 태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많은 공신들을 훙장시켰다. 그 과정을 보면 비열해보이기까지 하지요. 반면 세조는 공신들을 우회했다.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양정이다. 양정은 계우집 날시 김종서를 죽이는 데 공을 세운 세조의 핵심인사였지요. 문제는 이 사람이 솔직지에서 세조에게 양위를 종용했다는 것. 이에 세조가 '내가 언제 임금의 자리를 탈락시킬까?'라고 말하며 당장 양위하겠다고 나리를 치고, 신하들이 말도 안 하는 소리라고 반대하고, 세자는 읊고불고, 양정은 '임금의 명령이 이리하다'라고 말하며 양위를 촉구하고... 결국 상황이 정리되고 사건이 있는지 나를 뛰어 양정은 짐수 달했다. 참고로 조선 역사상 삼하기에 왕에게 물려나리는 말을 한 게 이 외에 두 번이 더 있다. 한 번은 선조 때로 진전 대원에 애처가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상인 정희왕후 윤씨(윤씨(肇寧 大王室))를 머니로 두고, 양정은 '임금의 명령이 이리하다'라고 말하며 양위를 촉구하고... 결국 상황이 정리되고 사건이 있는지 나를 뛰어 양정은 짐수 달했다. 참고로 조선 역사상 삼하기에 왕에게 물려나리는 말을 한 게 이 외에 두 번이 더 있다. 한 번은 선조 때로 진전 대원에 애처가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상인 정희왕후 윤씨(肇寧 大王室)를 머니로 두고, 양정은 '임금의 명령이 이리하다'라고 말하며 양위를 촉구하고... 결국 상황이 정리되고 사건이 있는지 나를 뛰어 양정은 짐수 달했다.

우선 대원한 애처가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상인 정희왕후 윤씨(肇寧 大王室)를 머니로 두고, 양정은 '임금의 명령이 이리하다'라고 말하며 양위를 촉구하고... 결국 상황이 정리되고 사건이 있는지 나를 뛰어 양정은 짐수 달했다. 참고로 조선 역사상 삼하기에 왕에게 물려나리는 말을 한 게 이 외에 두 번이 더 있다. 한 번은 선조 때로 진전 대원에 애처가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상인 정희왕후 윤씨(肇寧 大王室)를 머니로 두고, 양정은 '임금의 명령이 이리하다'라고 말하며 양위를 촉구하고... 결국 상황이 정리되고 사건이 있는지 나를 뛰어 양정은 짐수 달했다. 참고로 조선 역사상 삼하기에 왕에게 물려나리는 말을 한 게 이 외에 두 번이 더 있다. 한 번은 선조 때로 진전 대원에 애처가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상인 정희왕후 윤씨(肇寧 大王室)를 머니로 두고, 양정은 '임금의 명령이 이리하다'라고 말하며 양위를 촉구하고... 결국 상황이 정리되고 사건이 있는지 나를 뛰어 양정은 짐수 달했다.

2022년 겨울은 호랑이 해를 맞이하며

기고

박남구

대전컨텍션센터협회장



것이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60년만에 오는 세상을 호령하고 용맹을 펼치는 겨울은 호랑이의 해라고 한다. 부디 돌아오는 신년에는 우리 모두 희망찬 새해가 됨으로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 선거도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후보자 모두 국민을 위한 전략 정지를 펼쳤으면 한다. 서로 네거티브 정치는 이제 그만 보여 주면 좋겠다. 제발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게 정책과 소신을 매일 한 개씩만 아니라 발표해 주기를 희망한다. 정치는 생물이다. 관리가 잘 안되면 상장기 쉽다. 관심을 가지고 운도 습도를 잘 맞춰줘야 산신하고 맞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여될 것이다. 정치에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물려가야 한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등 융·복합을 해석해 딥러닝을 하고 더 큰 시나리오를 내고 있는 이때, 정치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다시 3공, 4공 시절로 되돌아 갈 것인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는가? 현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참모를 잘 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실무진들과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후보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다 아는 만물박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겨울은 호랑이 해, 2022년 새해에는 희망을 주는 나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취업 준비생, 경력단절된 여성, 신·중년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겨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모두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시기, 이성과 지성을 일깨워주는 책!

팩트풀니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오해와 편견을 이기는 팩트의 중요성을 통찰한 혁명적 저작

현대과학 발달 전, 최악의 피부병은 매독이었다. 험오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질병은 징소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리시아는 플란드병, 블란드는 독일병, 독일은 프랑스병, 프랑스는 이탈리아 병이라 불렸다. 희생양을 찾으려는 인간 본성의 핵심이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 우리에게 비난할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외국인 한 명이 그 병을 옮겼다면,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를 주자없이 통째로 비난해온다. 자세한 조사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본문 가운데 (비난 본능)에서



김영아
TEL: 031) 595-3100 www.gimmyoung.com
한국서점에 입점합니다.



PLUG INTO YOUR SENSES
당신과의 교감을 위해
THE GENESIS GV60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전비 및 등급 ▶ 4WD 20인치(복합4.3km/kWh(도심4.6km/kWh, 고속도로4.0km/kWh) | CO₂ 배출량 0g/km | 1회충전 주행거리 380km | 충전지 경력전압(전류용량) 0.97kV(111.2A) | 공차중량 2,100kg) ▶ 4WD 19인치(복합 4.5km/kWh(도심4.8km/kWh, 고속도로4.1km/kWh) | CO₂ 배출량 0g/km |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 | 충전지 경력전압(전류용량) 0.97kV(111.2A) | 공차중량 2,095kg) ※ 위 인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인비로서 도로상태, 충전방법, 사양적재, 경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전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금출발, 금가속 및 금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제네시스는 지정/대리점의 키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